

2021-8

Democracy Academic Fellows  
Report on Democracy Overseas

# 코로나 이후 중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양상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 코로나 이후 중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양상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 01

## 서론

오늘날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든, 사회성격과 민주주의, 대중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쟁에서든 '중국'은 뜨거운 테마다. 중국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접근하느냐의 문제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향배에 대한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 우익 포퓰리즘과 자민족 우선주의의 고조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모호하게 만들고, 제한된 시야를 통해 타 사회를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중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모순을 그곳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초 후베이성 우한에서 촉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이후 중국 사회가 '민주'라는 화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쟁점들을 통과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이어서 개혁개방 이래 40년간 한편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과 노동권의 추락, 여성에 대한 성별화한 폭력 등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 시민사회가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논쟁, 이를 매개하는 사유와 집단적 실천을 통해 그들의 고유하고도 집단적인 힘을 축적해나갈 때, 비로소 사회운동 저변의 힘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 02

팬데믹: “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2020년 1월부터 급작스럽게 전파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당시만 해도 이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뒤흔들 사건이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유행 초기에는 단지 중국에서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겨졌고, ‘바다 건너 불구경’처럼 인식됐다. 하지만 빠르고 광범한 전염의 위력을 지닌 이 바이러스는 오늘날 각국 사회의 모순을 여실히 관통하고, 불평등 사회의 현실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서른넷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고(故) 리원량 의사는 2019년 12월 말 ‘사스’와 닮은 바이러스의 발견을 고발함과 함께 공안 당국으로부터 기소됐다. 며칠이 지난 1월 3일 우한시 공안부는 그에게 인터넷상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지와 위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는지 묻는 ‘훈계서’를 들이밀었다. 황당한 일이지만, 일개 의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릴없이 리원량은 “할 수 있습니다(能)”. “인지했습니다(明白)”라고 서명했는데, 전염병 발발이 확고한 진실로 알려진 후 자신 역시 바이러스에 전염되자 그는 인터넷상에 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린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2월 7일 그는 부인과 다섯 살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 사람들은 그가 인정한 훈계서의 문구를 거꾸로 뒤집어 “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不能! 不明白!)”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많은 청년들이 다섯 글자가 적힌 종이나 피켓을 들고 릴레이 인증샷을 찍었고, 침묵시위 릴레이는 중국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사건이 됐다. 이는 언론자유가 없는 중국 사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상기시켰는데, ‘내부고발자’를 뜻하는 ‘whistle-blower’의 뜻을 되살려 수백 명의 청년들이 인터넷서널가 멜로디에 맞춘 휘파람을 부르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련의 저항적이고 집단적인 사건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중국 정부는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예방에 주력하기보다는 자칫하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정보 차단에 급급했다. 이로 인해 1월 23일 전염병 발발이 공식화하고 우한이 봉쇄되자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높여야 한다고 여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 됐다.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고발했다가 당국에 잡혀갔던 변호사이자 개인 활동가

---

천추스(陳秋實)는 우한 내에서 활동한지 보름만에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채 1년 6개월 가량 모처에 격리되어 지내야 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과정에서 서구 선진국들은 전염병 통제에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를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식의 동원 시스템은 시민들의 이동, 언론 등을 강력하게 차단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국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당국은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지엔캉마(健康码)라는 디지털 건강코드(Health Code)를 도입했는데, 이는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빅데이터에 기초해 시민들이 행정구역 경계나 특정 시설을 통과할 때마다 활용된다. 이동경로나 건강 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적극 활용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바이러스 종식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는 ‘천망(天网; skynet)’이 폭넓게 구축되고 있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된 수많은 얼굴인식 감시카메라가 수집한 데이터는 도시별 공안국에 설치된 빅데이터센터로 집중된다. 이 센터는 실시간으로 시 전체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공공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도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이 도시의 모든 건물, 모든 아파트의 데이터 모형을 갖고 있”으며, 만약 수도와 전류량, 정보에 이상이 감지되면, 시스템은 곧바로 경보를 알린다.<sup>1)</sup>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난 후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우한 봉쇄 이후 1년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2억 5천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그 피해는 서구 선진국의 저소득 노동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매우 심각한데, 반면 중국은 권위주의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바이러스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 수치상으로 볼 때 중국의 방역은 경쟁국인 “미국과 비교해 성공적”이다. 11월 1일 기준 중국의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 미만이고 사망자 역시 4,636명인데 반해,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4,610만 명, 사망자는 75만 명에 다다른다. 방역 성과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는 중국 내 정치적 안정성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의 주류 연구자들은 방역 성공을 서구와 다른 ‘중국식 거버넌스’의 결과로 해석하는데 열을 올린다. 가령 중국과학원대학 셰마오송(謝茂松) 교수는 중국이 큰 사회와 큰 정부의 힘이 결합된 ‘거국체제’라는 점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一視同仁)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중국 시스템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이는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

1) 刘主任,「最近在社交媒体疯传的天网系统,到底是什么鬼?」, 중국 IT웹진 ‘지능군(智能菌)’

---

시각이다.

이에 맞서 홍콩중문대학 친후이(秦暉)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방역은 효과가 좋지 못했던 데 반해, 중국의 격리·추적이 효과적이었던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도의 우위를 따지기보다 각각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찰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늦었지만 상대적 우위를 드러낸 전파자 숫자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요소가 감추어져 있다. 통제냐 자유냐라는 이분법을 통해서만 평가하면, 방역의 민주성이나 지속성, 노동과 보전에 대한 인식을 어렵게 한다.<sup>2)</sup>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통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이가 두 개의 이벤트를 변곡점으로 꼽고 있다. 하나는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방역 통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꽤나 중요한 문화적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2022년 10월에 있을 ‘20차 당대회’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

---

2) 세마오송 외,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 대안적 문명과 거버넌스』, 책과함께

## 03

## 경제: 불평등의 심화와 공동부유론

개혁개방 노선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지만, 인민들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착취로 안내했다. 기존 단위체제에서 작동하던 사회보장제도는 시장화했고,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유기업 노동자와 농민들의 고용유연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90년대 초반까지 동북3성(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과 허베이성 등에는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평생직장’에 대한 대규모 정리휴직 조치(下崗)가 이뤄졌다. 말이 휴직이지 실제로는 해고나 다름없었고, 정부는 아주 약간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뿐이었다. 90년대 후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수는 통계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에 달한다. 1990년대 중반 중국 북방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매우 일상적이었는데, 1995년에만 30여 개 공업 도시에서 11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했고<sup>3)</sup>, 1998년에는 그 수가 360만 명에 다다랐다.<sup>4)</sup>

다른 한편 연안 지대(중국 남해와 동해를 면하고 있는 광둥성, 푸젠성, 저장성 등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공업도시 밀집지역)에는 농촌 출신의 노동자를 지칭하는 농민공들이 대규모로 이주해왔다. 농민공은 크게 호구로 등록된 성(省) 바깥으로 이주하는 외출농민공(外出农民工)과 해당 지역 내 도시로 이주하는 본지농민공(本地农民工)으로 나뉘는데, 외출농민공 숫자는 199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했다(그래프 1). 1989년 6월 톈안문 사건(天安门事件)<sup>5)</sup>은 학살로 종식되고, 90년대 내내 국유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면서 동시에 산업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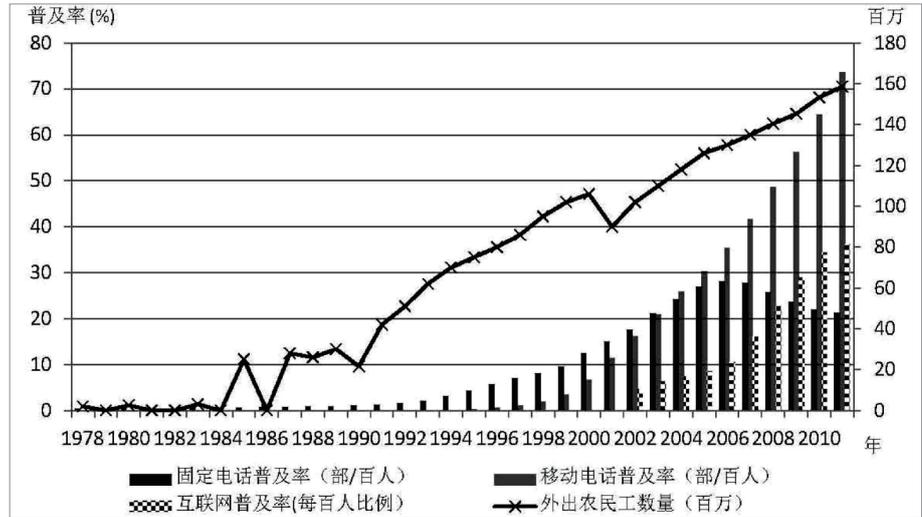
3) “中国官方报道说, 有数百万的人卷入工人抗议活动”, FBIS-CHI-96-007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1996년 4월 19일

4) 《South China Morning Post》 1999년 3월 26일

5) 톈안문 사건의 구조적인 연원과 노동자 투쟁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하남석의 〈1989년 천안문 사건과 그 이후—역사의 중첩과 트라우마의 재생산〉, 《역사비평》(2020 여름), 이홍규의 〈1989년 천안문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사회주의민주’의 구현을 위한 체제 내 민주화 운동〉, 《중국지식네트워크》(14권14호) 참조. 톈안문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조영남의 저서 『톈안문 사건』(민음사) 1부 참조.

〈그래프 1〉 외출농민공 수량 추이

단위: 퍼센트(좌), 100만 명(우)



인구이동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Simon S. Kuznets)는 농업에서 제조업,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경제시스템의 변동 과정에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규명한 바 있다.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 초기 도시 거주자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고 직업선택의 폭도 넓지만, 이에 반해 농민들은 도시로의 이주 후 고용주들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 노동시장에서 아주 저렴한 축에 속하는 농촌 인구를 도시로 끌어와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약 30년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1988년 약 1억 2천만 명이었던 농민공 숫자<sup>6)</sup>는 2018년 2억8,836만 명을 기록했다.<sup>7)</sup> 아마도 이 증가세는 임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sup>8)</sup>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부터 40년 사이 GDP는 224배 늘었고,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152배 성장했다(그래프 2). 이런 비약적인 성장은 모두 노동자계급에 대한 극심한 착취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동시에 빈부격차는 매우 극심해졌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1990년대 초반 중국에서 상위 10%가 전체 부의 40~50%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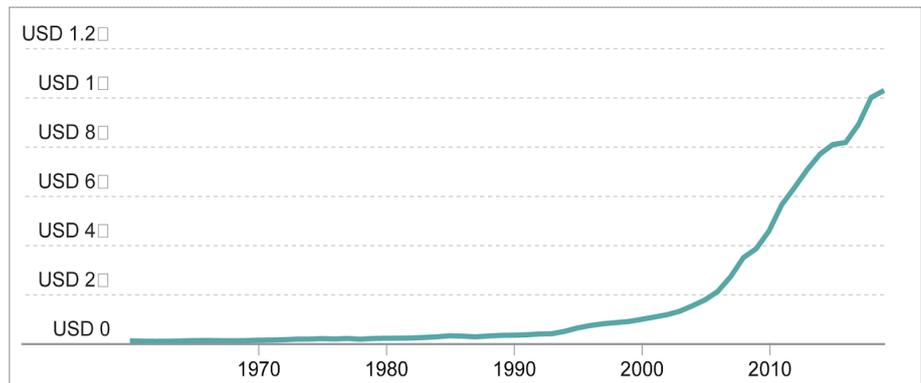
6) 吴俊松, <1980年代农民工总人数约1.2亿 75%出自乡镇企业>, 南方日报, 2011年07月01日

7) 「2018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国家统计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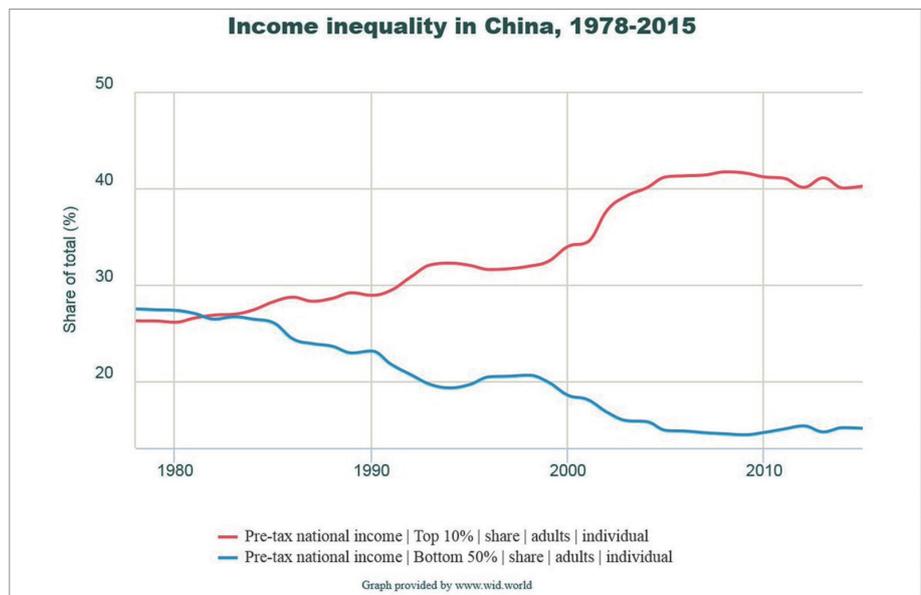
8) 2019년 농민공 수는 전년에 비해 0.84%만 증가했고, 2020년에는 2억 8,560만 명으로 전년보다 517만 명(1.8%) 줄어 증가세는 완전히 멈춘 것으로 보인다.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 정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2018년에는 70%를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이 고도화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지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의 지니계수(0~1의 불평등 측정치)는 0.47이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의 데이터로는 2020년 0.704으로 매우 심각하다. 이런 차이는 중국의 경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어느 수치든 지난 20년간 불평등을 가리키는 수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프 2〉 중국 국내총생산 추이



〈그래프 3〉 1978~2015년 중국의 소득 불평등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이른바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내수 소비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경기부양을 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sup>9)</sup> 그러나 그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고, 특히 2021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8월 소비와 생산, 투자 등 주요 실물경제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sup>10)</sup>

이런 가운데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면의 목적을 봐야 하는데, 이는 서구 언론들이 잘못 지적하듯 “마오쩌둥 노선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정치·경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열린 제10차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sup>11)</sup>에서 시진핑 주석은 시장경제 개혁 방향으로 ‘3차 분배’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구조적·정책적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고수입자에 의한 자선 및 기부사업을 통한 분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1차 분배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분배, 2차 분배는 정책에 따른 분배를 말한다. 즉, 3차 분배는 성장과 분배의 관점에서 돈 있는 자본가의 자선과 기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실상 구조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불평등 정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대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정책적인 개혁이 아예 시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1998년 사실상 부동산을 사유화한 이래 부동산 버블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을 시도하는 등 거품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별 토지재정 의존도의 차이와 경제 수준 격차가 큰 상황에서 성공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중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치만으로 민간의 피해를 판단할 순 없다. 민중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 세계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계층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저장대학 중국농촌발전연구원(浙江大学中国农村发展研究院)에 따르면 전체 농민공의 약 10%인 2,500만 명 정도가 실업 상태에 빠졌다. 2020년 중국 농민공 총수는 2억 8,560만 명으로, 전년대비 1.8% 하락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대거 농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수의 농민공들은 반실업 상태로 대도시에 남아있고, 농민공들이 입은 피해는 대도시 호구(户口)를 갖고 있는

9) 「중국 ‘쌍순환(双循环) 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10) 8月份国民经济发展韧性持续显现, 2021年9月15日, 国家统计局

11) 중앙재경위원회는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중앙네트워크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중앙외사업무위원회’ 등과 함께 중국 공산당 직속의 4개 국정 논의체 중 하나로, 경제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모이는 테이블이다.

---

시민들에 비해 훨씬 크다.<sup>12)</sup>

올해 중국에서는 인구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됐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농촌공동화를 야기하고 있는데, 자본의 입장에서 이는 노동수급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실제 코로나 이후 중국 일부지역, 산업, 계층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과 구인난 등 문제는 꽤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규모가 줄었고, 대학 진학이 늘어 노동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데 반해,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떨어졌다.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수출 등 총수요는 급격히 둔화했고, 노동자들의 상황은 크게 위축됐다.

---

12) 聂琳, 「浙大教授:新冠疫情或危及2500万个农民工就业岗位」, 界面新闻

## 04

## 노동: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

이제 코로나 이후 중국의 사회운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노동, 여성,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노동통신(中国劳工通讯)이 2020년 1년간 수집한 노동쟁의 건수는 총 800건이다. 이 중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은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운수물류업 156건, 서비스업 144건이었으며,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송 플랫폼 노동자의 투쟁이 34건 발생했다.

2021년 3월 1일과 2일에는 광둥성 선전에서 1천 명의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용역회사의 수수료 인하에 항의하며 파업했다. 3월 2일 산둥성 린이시(临沂市)에서도 메이투안(美团) 소속 배달 노동자 수백 명이 임금 인상과 관리자들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린이시에서 메이투안 라이더들이 집단적으로 파업한 것은 2년 만이다.

한편, 이와 동시에 중국 내 음식배달 노동자들의 영웅 천귀장(陈国江)이 체포되기도 했다.<sup>13)</sup> 천귀장은 온라인상에서 음식배달부연맹(外卖骑手联盟)을 결성하고 영상콘텐츠 플랫폼 빌리빌리(哔哩哔哩; bilibili)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권 문제를 폭로해왔다. 특히 전국적인 배달노동자 네트워크를 조직해왔다. 단톡방 16개에 무려 1만 4천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그가 '맹주'라 불리는 것은 단지 인터넷 말장난이 아닌 셈이다. 이런 천귀장이 체포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체포 후 3일이 지난 2월 28일이다. 이후 한 달간 그의 동료 노동자들과 가족들, 중국 내의 활동가들은 그의 행방을 파악하고 석방을 호소하는 활동을 펼쳤다. 천귀장이 사라진지 약 보름이 지난 3월 15일, 그의 부친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아들의 석방을 호소하는 편지를 올리면서 5만 위안(한화 864만 원) 가량의 변호사비를 마련하는 일에 도움을 구했다. 이 글은 1시간만에 삭제됐다. 편지에서 그는 당국으로부터 아들의 체포 사유에 대한 어떠한

13)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플랫폼c가 발행하는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3월호 <중국 음식배송 라이더들의 상징적 인물인 구속되다> 참조. <http://platformc.kr/2021/04/eastasia-social-movement-202103/>

---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한 인사의 가족들에게 24시간 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월 16일,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阳区)公安당국은 천궈장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寻衅滋事)'는 혐의로 체포됐으며, 구치소에 구류됐다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후로 중국 안팎의 활동가들은 천궈장 석방 캠페인을 펼쳤다. 비록 2018년 자스커지(佳士科技) 투쟁<sup>14)</sup>을 거치며 많은 수의 노동운동가들이 체포되긴 했지만<sup>15)</sup>, 국제적인 관심과 연대가 확대될수록 구치소에 갇힌 천궈장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전국적인 음식배달 노동자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던 이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체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와 투쟁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도래한 비대면 일상을 지탱시키는 필수 노동은 다름 아닌 배달 노동이다. 2020년 3월 중국인들은 일일 평균 7.2시간 인터넷을 이용했는데, 이는 전년도 3월 5.6시간에 비해 28%(약 100분)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견되어 몇 달간 도시를 정지시켰던 우한(武汉)시에서 라이더들은 집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시민들의 생존을 책임졌다. 가령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의 배달 노동자들은 봉쇄 시기 정부의 휴무 연장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근해야 했는데, 사측은 “바이러스를 핑계로 일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엄포까지 늘어놓았다. 전염병으로 봉쇄된 도시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불과 70일 간 메이투안이 새로 증원한 배달 노동자만 45만8천 명에 달한다. 전염병이 촉발시킨 급격한 경기침체 속에서 호텔이나 공장 등 기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무급 휴직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소득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긱이코노미(Gig Economy)’의 델감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했다. 2020년 3월 메이투안 사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메이투안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 배달 노동자는 399만 명이었다. 경쟁사인 여러머의 경우 약 300만 명이었다.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800만 명이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중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37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소비자가 앱을

---

14) 자스커지 투쟁은 2018년 6월 중국 선전에 위치한 용접기 제조업체 선전자스커지유한공사(深圳佳士科技有限公司) 공장 노동자들이 기업 공회 설립을 목표로 시작하여 학생운동가들의 연대로 확대된 사건이다. 경찰 당국의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종결되었다.

15) 2018-2019년 자스커지 투쟁에 대해서는 박민희의 『중국 딜레마』(한겨레출판) 중 4부 선명위(沈夢雨)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또는 필자의 책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빨간소금) 참조.

---

이용해 온디맨드(On-Demand) 방식<sup>16)</sup>으로 주문하면, 식당에서 집 앞까지 배송된다. 2019년 중국 인구 30%에 달하는 4억 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로는 급증하는 추세다.

메이투안과 함께 시장의 1/3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은 ‘어러머’다. 2018년 4월 마윈(马云)이 대주주로 있는 알리바바(阿里巴巴)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메이투안과 경쟁하고 있다. 등록된 배달 노동자 수만 300만 명이 넘고, 영업 범위는 중국 전역의 2천여 개 도시, 점포 130만 점이 넘는다.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은 회사에겐 높은 이윤과 시장에서의 우위를 안겨주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끔찍한 초과착취를 선사한다. 지난 경기침체 시기 플랫폼 간 경쟁은 저가의 배달비를 촉진했는데, 2017년 기준 메이투안이 고객 유치를 위해 소모한 보조금만 42억 위안(7,500억 원)에 달한다. 그해 메이투안은 29억 위안(5천억 원)의 적자를 감수했다. 지독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인데, 이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 가령 4년 전인 2017년 선전의 배달 노동자는 보통 월 3,400위안(55만 원)을 벌기 위해 매일 30건 이상의 주문을 받아야 했고, 하루 12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대부분 사회보험도 없이 일한다. 이러한 신세대 농민공들의 현실은 지금도 여전하다. 공청단 중앙위원회(中国共产主义青年团中央委员会)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배달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작성한 비율은 78.7%에 그쳤다.

2020년 국가우정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邮政局) 기관지 『China Post and Express News(中国邮政快递报)』가 실시한 배달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6만 5천 명의 배달 노동자 중 75% 이상이 5천 위안(85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고, 대부분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절반 이상이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으며, 약 60%는 월 3일 이상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아침 9시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12~14시간 매일 같이 일하면서도 휴일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중국의 현행 법률은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1시간만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3시간 연장할 수 있고, 매월 합쳐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sup>17)</sup> 이를 온전히 지키는 음식배달 노동자는 거의 없다.

---

16) 각종 서비스와 재화가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되는 사업을 지칭한다.

17)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第四十一条

---

배달 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로 노동 재해다. “배달은 저승사자와의 경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점점 줄어드는 배달 시간 때문에 빈번하게 교통 규범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sup>18)</sup> 한 독립연구자가 2018년 3월부터 반년 간 수십 명의 배달 체인 노동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배달 노동자들은 갈수록 더 심하게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다.<sup>19)</sup>

2020년 중국 내에서 배달 노동자 인권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월간 『런우(人物)』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어러머(饿了么)의 한 노동자는 3km당 최저 32분에 처리하던 배송을 이제 30분 안에 완수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한다. 시스템이 요구하는 배달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기 때문이다. 가령 충청에서 장거리 전담 배달을 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동일 거리 운송 시간이 50분에서 35분으로 줄어들었다. 메이투안에서 3년간 일한 다른 노동자 역시 2016년 1시간이었던 배송 간격이 이듬해 45분, 다음 해 38분으로, 급기야 2019년엔 28분으로 줄었다. 해마다 10분이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라이더가 감수해야 할 위험과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sup>20)</sup>

택배업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 이후 업계 내 기업들이 목숨을 건 가격 경쟁에 몰두하면서, 택배기사들 역시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본사의 압박으로 지역별 용역업체들이 도급 가격을 낮추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거나 체불되면서, 2020년 최소 31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발생한 파업만 134건으로 급증했다. 파업들은 광둥성과 장쑤성, 산둥성 등 연안 지역 도시들에 집중됐다. 1년 사이 건당 1.7위안 가량이었던 수수료는 이제 1위안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가격 경쟁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020년 기준 택배업 종사자는 400만 명에 육박했는데, 퇴직률은 33.1%로 중국 내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다.<sup>21)</sup>

---

18) Leo Tang Kin Wa, 『中國外賣車手工潮報告(2017-2018)』, 香港職工會聯盟 2019年7月

19) 陈武城, 「京津冀外卖及快递员调查报告」

20) 赖祐萱, 「外卖骑手, 困在系统里」, 『人物』, 2020年9月

21) 「快递业工人今年发起上百起罢工, 抵抗延续一年多的价格战」, 中国劳工通讯

## 05

## 여성: 미투운동

오늘날 중국 여성들이 처한 성차별적 현실은 동아시아의 여느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중국 여성들이 일본이나 한국 등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풍문은 실제 거의 들어맞지 않는다.

2018년 초 이래 중국에서 미투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었던 이유는 이런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2018년 초 선양(沈阳) 베이징대학 교수 성폭력 사건과 천샤오우(陈小武) 베이징항공항천대 교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후 미투가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왔고, 청년 여성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 미투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 없는 여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무관심과 제도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맞선 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공공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조건에서 여성주의 운동은 공론장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2019년경 중국에서 『82년생 김지영(82年生的金智英)』 번역판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 대륙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으로서 매년 300억원의 수입을 올리던 우이판(吴亦凡; K-POP 아이돌 엑소의 원년 멤버)이 결국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끈질긴 대중 행동에 기인한다.

탄압도 만만치 않다. 2021년 9월 19일 독립 언론인이자 여성운동가 황쉐친(黃雪琴)은 직업병 산재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왕젠빙(王建兵)과 함께 광저우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황쉐친은 2010년 대학 졸업 후 중국 신문사 광둥지국의 기자로 활동한 뒤 신쾌보(新快報), 난두주간(南都週刊) 등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한 저널리스트다. 경찰은 왕젠빙의 자택에 들이닥쳐 두 사람을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가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저우경찰은 통지서 발부는 물론, 두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이 사건에

---

대해 외부와 소통하거나 언론과 인터뷰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sup>22)</sup> 실종 45일째인 11월 3일까지도 두 사람의 수감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국 형법상 체포 또는 석방될 때까지 최장 37일간 공안기관이 구금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도 심각하다. 2009년에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은 38.8%에 다다랐다. 2013년 광둥성의 여성노동자 지원단체 지엔자오부락(尖椒部落)과 선전시 녹색장미 사회공작복무센터(深圳市绿色蔷薇社会工作服务中心) 두 여성노동자NGO가 즈웨이 테크놀로지(广州市知微科技有限公司)와 셔우첸셔우 테크놀로지(深圳市手牵手科技有限公司) 두 공장에서 실시한 '여성노동자 성폭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69.7%와 71.2%에 다다른다. 이렇게 10명 중 7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그 중 극히 일부가 고소와 진정 등 조치를 취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46.6%가 처리 과정이 유야무야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답했다. 항의 후 폭력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고작 10%를 차지했고, 가해자가 해고된 것은 1%에 지나지 않았다. 2017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43.8%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 여성 중 26.6%만이 가해자에게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었고,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24.1%에 그친다고 답했다. 대다수 피해자가 그냥 참거나, 퇴사하는 것으로 종결됐다.<sup>23)</sup>

실제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2021년 한 해에도 내내 반복됐다. 2021년 7월 27일, 알리바바의 한 여성 노동자는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 열린 회의로 출장을 갔다가 상사 관리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나흘이 지난 7월 31일, 피해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는데, 가해자는 다름 아닌 알리바바그룹 산하 타오시엔다(淘鲜达)의 임원이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난 현지의 B2B 고객들과의 저녁 술자리에 함께 가자고 강요하였는데, 이날 식사도중 피해자는 강제로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그러자 신원 미상의 고객이 식당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타오시엔다는 알리바바가 대도시 소매 유통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만든 플랫폼 기업으로, 상가 입주 오프라인 점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전통적인 소매업계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타오바오(淘宝网)와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추구한다. 한데 이 회사가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우 고질적인 접대 기풍이 여성 노동자에게 폭력으로 귀결된 것이다. 가해 당일 피해자는 정체불명의 호텔로 옮겨졌는데, 이후

---

22) 黃雪琴：“哪有记者不发声”。

23) 劉貝(2019), 「防止職場性騷擾的法律體系構建研究」, 『現代交際』 2019年01期

---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 임원은 이날 밤 피해자의 방에 네 차례에 걸쳐 들락날락했다. 다음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곧바로 지난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를 불러 심문했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풀려났고, 회사 역시도 이 사건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유인물을 제작해 알리바바의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에게 배포했다. 그러자 사측 경비들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큰 소란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폭로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알리바바의 최고경영자 장용(张勇)은 8월 1일 회사 직원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충격적이고 분노하며, 부끄럽다”면서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으로 직장 내 성폭력 등에 있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논란 이후에야 이뤄진 조치다. 8월 9일, 알리바바그룹 지주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해당 가해자 임원을 해고하고,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임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룹의 인사총괄 담당자는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8년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진 여성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06명 중 87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0명은 직장 동료나 친구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 있다고 답했다.

중국의 고위 공직자 구성을 보면, 여성은 16.8퍼센트에 불과하며, 기업 내 여성 임원 역시 17.5퍼센트다. 이런 현실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성폭력 피해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 중국의 노동자운동은 자주성과 독립성, 적극적인 항의 행동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통로도 부족하다. 게다가 노동법이나 성추행 방지법 등도 법률상으로는 존재할 뿐,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06

## 시민사회: 국가권력의 배제와 포섭, 그리고 감시

일반적으로 구(舊)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의 시민사회와 방향을 달리한다. 특히 아직까지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시민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 사회운동처럼 국가에 도전하는 방식보다는 '시민 우선(society-first)' 전략을 우선하는 방식을 통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이런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다음 아닌 자주적 사회조직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이나 시민사회의 형성은 매우 더디고, 여전히 '강한 국가, 약한 사회'(strong state, weak society)가 유지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 집권기(2003-2012년)는 자주적인 시민사회가 크게 성장한 시기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진핑 집정기에 접어들면서 당국은 사회조직의 관리 방향을 '사회 치리(社会治理)'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무원 민정부(民政部)에 등록된 사회조직의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4년 28.8만 개였던 사회조직은 2015년 66.2만 개에 달했다.<sup>24)</sup>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 동원과 행정적 관리의 대상으로 보던 것을 벗어나, '당-국가의 주도'를 바탕으로 여러 민간 주체들이 참여하는 '치리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에 있다. 2016년 8월 중국 정부는 <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의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고, '책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자금에 대한 감독 강화',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사회적 감독의 강화', '사회조직 퇴출 기제의 완비'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조직들 내에 당조직을 건설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했다. 당-국가의 방침에 순응하는 사회조직들만 지원하고,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방향으로 활동하는 사회조직들은 철저하게 제어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공간에서 비판적 시민·사회운동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거의 없다.

올해 4월 시민운동가 쉬즈용(许志永) 체포 사례가 이런 맥락을 잘 드러낸다. 2010년대 초 쉬즈용은 공맹(公盟)이라는 NGO(사회조직)를 설립해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24) 「2014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 「2015년 사회서비스 발전 통계공보」

---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2014년, 그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는 중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빈번하게 적용받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통제 수단이다. 출소 후 2019년 겨울, 그는 샤먼(廈門)에서 열린 인권변호사·연구자·시민 공동집회에 참여해 미래의 시민운동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 인권변호사 덩자시(丁家喜)와 여러 활동가들이 체포됐다. 수배자로 지목된 쉬즈용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벌어진 미·중 무역분쟁과 홍콩 항쟁 등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팜플렛을 발표한다.<sup>25)</sup>

2020년 1월에는 인권변호사 창웨이핑(常偉平)이 국가전복선동죄로 체포되어 산시(陝西)성 평상(鳳翔)에 있는 교향집에서 10개월 간 가택 연금됐다. 창웨이핑은 오랫동안 에이즈 감염자, 성폭력 피해자, 활동가와 같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헌신적으로 법률 지원을 해왔다. 2020년 10월 16일, 그는 영상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금 시기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자 5일 후 당국은 다시 그를 ‘국가정권전복선동’ 혐의로 지목해 주거 공간을 감시하다가 올해 4월 7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sup>26)</sup>

운동가들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탄압은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집단이 정치적 자율성을 드러내거나 당-국가의 통치 방향과 어긋날 때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 중국에서는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 등 집단에 대해 억압적인 조치들이 유감없이 이뤄졌다. 7월 6일 저녁 베이징대학의 ‘컬러월드(ColorWorld)’, 칭화대학 ‘퍼플(Purple)’, 푸단대학 ‘즈허셔(知和社)’, 우한대학 ‘성별성향평등연구회(性別性向平等研究會)’ 등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20여 개 대학 동아리 계정들이 갑자기 폐쇄됐다. 이런 조치를 대리하여 취한 텐센트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틀 후 외신기자들이 외교부 대변인에게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우리는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한다”는 짧은 답변을 남길 뿐이었다. 2020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 중국 대표단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지만, 실제 중국 사회에서 드러난 결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

25) 黃雪琴, 女性抗爭者李翹楚: “我有英雄情結, 但我幻想的英雄是我自己”, NGO CN 聲音計劃聯合

26) 夜火, 「律師常瑋平, 一個不見容於國家的人」, 端傳媒

〈그림 1〉 ‘파괴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 캠페인 포스터



젠더 이슈 동아리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최근 영페미니스트 그룹이 ‘6B4T’를 화두 삼아 중국 사회의 가부장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활동들을 펼친 점, 2018년 미투 운동 이래 20대 페미니스트들이 인터넷에서 집단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여기서 ‘6B4T’란 한국의 넷페미니스트 운동에서 유래한 슬로건으로,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를 의미하는 4B에 비소비(여성혐오 기업·물질·인물들을 소비하지 않는다)·비돔비(비혼이 비혼을 돕는다)를 더한 6B, 탈코르셋·탈종교·탈오타쿠·탈아이돌을 뜻하는 4T를 더하여 만들어졌다. 일종의 넷페미니스트 규율 혹은 품성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영페미니스트들은 오프라인상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것이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회운동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이상 유인물을 뿌리거나 피켓을 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대학 제도에서 등록 동아리가 아니면, 모든 활동은 ‘불법화’하고, 그런만큼 당국으로서는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을 제재할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극단적 애국주의자 집단인 ‘샤오펜홍(小粉红)’<sup>27)</sup>은 당-국가로부터 포섭된

27) 작은 분홍색이라는 뜻으로, 애국적 광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누리꾼 집단을 지칭하며, 주로 90년 후에 출생한 ‘주링허우(90后)’와 ‘링링허우(00后)’ 세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세대적 구분이 정확한 것은 아니며, 그 세대의 주류를 형성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

집단이다. 오늘날 중국 민족주의의 특징은 특유의 호전성과 총동성에 있다. 물론 세계화 이후 아시아에는 민족주의 정서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미국 역시 트럼프 집권기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슬로건 하에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이 발호한 바 있다. 한데 중국의 경우에는 소위 전랑외교(战狼外交)와 결합되어 특유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사회 내부의 이견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学习时报(학습시보)》의 부편집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는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덩위원(邓聿文)은 이들 ‘샤오편홍’의 민족주의가 ‘위대한 중화민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비전과 조우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오늘날 민족주의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의 민족주의와는 성격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한다. 과거 중국 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당-국가의 외교 노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 때문에 당-국가가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병행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국가 전략과 조우한데다, 소셜미디어의 광범한 활용 속에서 몇몇 애국주의 인플루언서들이 대두되어 여론을 기민하게 선동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중국 민족주의는 ① G2로 등극해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경쟁하는 현재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며, ② 과거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민족주의에서 진취적이고 공격적 민족주의로 변화했고, ③ 민간과 관방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동시에 민간 영역의 민족주의자 집단은 점차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언론에도 자주 소개되는 후시진(胡錫進), 투주시 등 인물들이 이런 집단을 대표한다. 당-국가가 내세우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中國夢)’ 등 슬로건과 더불어 일종의 ‘합법성’을 획득했다. ④ 끝으로,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은 청년들이 민족주의의 전파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궁극적으로 이는 정치·경제 분야의 엘리트 집단에게 옮겨져 제도화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sup>28)</sup>

---

28) 邓聿文, 「民主退潮、道路自信与国际公民, 两位中国Z世代留学生眼中的世界」, 端传媒

## 07

‘자각된 시민들의 집단적 힘’은  
형성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다양각색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대륙 전체를 통찰해낼 순 없는 노릇이다. 숲 전체를 포괄하는 시야는 꾸준한 상호 교통과 열린 논쟁을 통해서야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사실들로 선부르게 전체를 진단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다양한 시선들을 묶어내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꾸준함에 달려 있다.

기실 한 사회의 민주적인 전환은 반드시 국가 전복적인 저항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과 사회운동의 발전에 달려 있다. 비판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어야 자본과 엘리트 집단에 집중된 정치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힘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래로부터의 힘을 어떻게 축적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론 지형에 ‘다른 목소리’가 스며들 수 있는 기회, 민족주의가 아닌 국제주의적 시야를 견지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그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올해 1~2월 보이스 기반 소셜미디어 앱인 클럽하우스(Clubhouse)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낳았을 때 중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한 바 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해외 거주 화인들 사이에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벌어졌다.<sup>29)</sup> 양안문제, 홍콩항쟁, 위구르족 탄압, 내몽골자치구 몽골족 교과서 문제, 마윈, 시진핑의 연임, 김치 논쟁 등 다양한 문제들을 두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화인들 간 무수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시기 필자가 이들의 토론을 걸핍기식으로 지켜보며 느낀 바는 매스미디어가 드러내는 단편적이고 선정적인 사실들에서 시민사회의 진면목을 파악하기란 아주 어렵다는 점이었다. 많은 중국의 시민들은 매우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신들이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쟁점에 대해 뼈아프게 통찰했다. 2월 8일이 되자 당국은 이 앱을 차단하기에 이르렀지만, 보름에 걸친 이 짧은 시기에 ‘샤오편홍’으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 여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견해들을 살필 수 있었다.

29) 门悦悦、杨钰、来福,「等墙来:Clubhouse真正“活”在中文世界的片刻」,端传媒

---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논쟁, 이를 매개하는 사유와 집단적 실천을 통해 노동자들, 시민들,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유하고도 집단적인 힘을 축적해나갈 때, 비로소 사회운동 저변의 힘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힘은 봉기적 형태의 사회운동이든 또는 교육과 문화운동 형태의 사회운동이든 중국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중국 사회에는 그런 힘이 있다.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저항들을 살피는 시선에는 그러한 신뢰와 소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 코로나 이후 중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양상

Democracy Academic Fellows: Report on Democracy Overseas

**발행일** 2021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